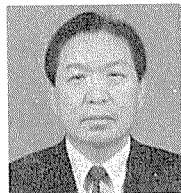


## 담석증



김 상 준

담석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 온 질환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개선에 따라 담석증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구미 각국에서 담석의 발생율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5%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색소담석이 많고 담내담석보다는 담도담석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담낭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육식을 많이하면서 담석도 서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원인

담석증의 원인을 분명하게 열거할 수는 없으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데, 첫째로 40세 이상인 인구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0세 이상의 인구에서 담석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약 20% 정도이며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0%가 담석증 환자이다.

둘째로 뚱뚱한 사람에게 담석이 많이 발생된다. 비만증이 있으면 복강내에 지방질이 많아 담즙의 흐름을 막고, 담즙이 고이게 되면 염증이 발생되고 담석이 형성된다고 본다.

셋째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에스트로젠 호르몬이 많아 담즙의 흐름을 방해하고 남자보다 운동량이 적어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네째로 아기를 많이 낳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역시 임신말기가 되면 자궁이 담도까지 압박하여 담즙을 저류시켜 담석이 많이 발생되고 임신 중에 에스트로젠 등 여성 호르몬의 과다분비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로 담낭이나 담도에 염증이 있으면 담즙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세균이나 담낭 내 점막 등이 핵이 되어 담석이 발생될 수 있다. 과거의 우리나라와 같이 장내 기생충이 많을 경우 기생충이 담관 내로 들어와서 죽게 되면 화석처럼 되어 담석으로



담석증은  
40세이상의 사람,  
뚱뚱한 사람에게 많고,  
여자 특히 아기를  
많이 낳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

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낙동강지방에서는 간디스토마가 담도에 엉켜서 죽게 되던 것이 담석으로 되는 것도 있다.

### 증상

담석증의 증상은 우측 상복부의 심한 통증이다. 담석이 담낭관을 막거나 담도를 완전히 막을 때 심한 통증이 발생된다. 담낭관을 막을 때는 통증만 있으나 담도를 막으면 황달이 발생된다. 담석이 담관이나 담도를 막고 있을 때는 심한 통증이 있다가 담석이 담즙에 떠있게 되면 통증은 곧 없어지고 황달도 소실된다. 담석이 담도를 막아 황달이 장기화되면 이차적으로 간에 담즙이 고여서 간경화증을 유발하게 된다.

담석이 있으면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식사 후나 공복 시에 명치가 아픈 것이다.

담석증이 있으면 소화불량 증세가 나타

나는데 이것이 단순히 제한 것과 다른 점은 담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소화제를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다.

또 담석증 환자는 트림을 많이 하게 된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식후에 한번정도 트림을 하면 되는데 담석증 환자는 식사와 관계없이 늘 트림이 나게 된다.

담석증을 오래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담낭에 염증이 심하게 되어 고름이 담낭 내에 차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오한이 심하고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측 상복부가 아프고 보행 시 우측 상복부가 울려서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 예방

담석증을 예방하는데 특이한 방법은 없으나 역시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 굴, 뱀장어 등을 늘 과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 식사는 합수탄소, 지방, 단백질 등이 고루 섞인 것을 섭취해야 하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좋다.

또한 늘 위생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담석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장질부사균은 담낭 내에서 일생동안 생존하면서 대변으로 균을 배설하여 전염시킬 수도 있어 위험하다.

담석이 노인층에 많은 이유는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담즙의 배설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치료

담석증의 치료는 담석의 종류와 관계가 있다. 담낭에 염증이 없는 콜레스테롤담석은 체외 충격파에 의한 쇄석기로 분쇄시켜서 담즙과 함께 씻겨 내려가게 할 수 있다.


담낭에 염증이 있거나 색소담석, 칼슘담석, 혼합담석은 쇄석기 치료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는 최신 치료법으로 복부 피부에 1cm와 0.5cm 상처 각각 2개를 내고 복강경을 넣고 레이저광선이나 전기소작기로 담낭과 함께 담석을 제거하면 된다. 이는 상처가 거의 없고 통증도 개복술보다 거의 없으며 회복이 빨라 시술 후 3~4일이면 퇴원할 수 있어 사회활동에의 복귀가 빠른 훌륭한 장점이 있

다.

다음의 치료로는 전통적인 개복술에 의한 담낭절제술인데 담낭에 염증이 심하거나 만성담낭염을 앓아 주위 장기와 유착이 심할 때 시행하게 된다.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데 오래 된 담석증은 담낭에 염증도 심하고 담석이 크고 숫자도 많아져서 수술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 또 담낭에 고름이 꼭 차있는 예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술하여도 경과가 좋지 못하여 수술상처에서 출혈을 하거나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담즙이 수술상처에서 흘러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로 환자의 수술 후 이환율을 줄이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므로 담석증이 있고 통증이 없다고 그냥 방치하는 환자가 간혹 있는데 이는 더 큰 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곧 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담석증 환자 100명중 1명은 암으로 되므로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하였다가 치유 불가능한 병으로 만들면 안된다. 각자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며 타고난 명까지 생존하기 위해서는 늘 건강에 유의하고 모든 병과 같이 담석증도 초기에 치유하여 무서운 담낭암이나 담낭농양 등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필자=중앙의대 용산병원 외과교수〉